

# 직업 선택(職業 選擇)의 길

---

김 수 흥

---

**해**마다 연말이면 학생들의 취업문제가 교수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과제이다. 특히 금년의 경우 IMF 이후의 경제사정을 반영이나 하듯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문을 꼭 잠그고들 있어서 인턴사원 자리도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국가나 대학이 인턴사원의 급료를 대신 지불하면서 까지 인턴사원 채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신진들에게 지금의 일할 자리 보다 직업 선택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야 하는 교수들의 입장은 다시 한번 괴롭기보다 고통스럽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직업 선택의 원칙은 많이 있겠지만, 나는 창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야에 자기의 인생을 전력투구하라고 주장하고 싶다. 어떤 분야의 창조 욕구에 인생을 걸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인간은 누구나 [제잘난 멋]의 자량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자량의 분야가 자기의 좋아하는 분야일뿐더러 남보다 우수한 소질의 분야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유리한 직업 선택은 자기의 소질이 있는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평생을 거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누구나 충고하는 진리이며, 우리나라를 다녀간 유명한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회장이었던 아이아코카씨도 강조했던 내용이다.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오래지 않아 정상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물론 도중에는 믿음도, 조화도 있어야 할 것이고, 경험적인 문제 해결도 필요하겠지만, 결과에는 작은 성공도 행복도 쌓이게 될 것이다. 어느 분야든 정상에 오르면 돈과 명예가 따르게 됨은 우리의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공을 잘 던져도, 바둑을 잘 두어도, 노래를 잘 불러도, 운동을 잘 해도, 사업을 잘 경영해도, 소설을 잘 써도, 심지어 중국집 배달을 잘해도 돈은 덤으로 벌 수 있고 명예는 싫어도 따라온다. 다시말하면 욕망의 도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창조 욕구보다 뒤로 미루었던 모든 일반욕구가 한꺼번에 충족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좀 더 각박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누가 몰라서 실천하지 못한다기보다 손에 잡히는 대로 직업을 택하다 보니 자기 소질과 상관 없는 분야에 몸을 담고 있고, 소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수입따라 직업을 택하다 보니 소질과 멀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경계할

것은 생활이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수입의 차이 때문에 소질과 맞지 않는 직업을 택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전체를 계산할 줄 모르는 조삼모사의 원숭이의 어리석음과 같다. 선량한 대다수의 우리들은 어쩔수 없이 자기 소질과 다른 직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철 모르고 정해버린 경우도 있을 터이고, 많은 시도 끝에 겨우겨우 붙잡은 직업도 있을 것이며, 부모나 주위의 강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쉽게 전직을 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흔히 보아왔다.

창조적인 취미를 가져야 한다. 관련 서적을 읽고 정보를 모으고, 여가있을 때마다 자신을 그 쪽으로 몰입하게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독일의 하인리히(H. W. Heinrich)가 주장한 인생 기회의 330 법칙(인생의 기회는 기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기회 300여건에, 작은 도움이 될만한 기회 29건이 있고, 팔자를 고칠 만한 큰 기회가 1회의 비율로 찾아온다는 것)에 따라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거나, 닦아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세기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특허국의 사원시절 좋아하는 물리학 공부에 열중하여 그 유명한 상대성 원리를 찾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마땅한 소질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딱 꼬집어 낼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질은 보잘 것 없다고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덮어두고 살아온 사람,

혹은 자포자기의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 시절에는 손 재주가 있어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게 지금의 프로그래머 생활과 무슨 상관인가 하거나, 지금도 야외에서나 회식 자리에서는 흥겹게 이끌 자신이 있지만 지금의 영업사원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열을 태울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 대답은 사고(思考)의 구조조정일 것이다.